

# 문헌분류법의 시·공간 전개체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ime & Space Division in Literature Classification

김 자 후(Ja-Hoo Kim)\*\*

### 〈 목 차 〉

- |                             |                   |
|-----------------------------|-------------------|
| I. 서 론                      | 1. 시대(연대)구분 개선방안  |
| II. 시·공간 분류체계 분석            | 2. 지역구분 개선방안      |
| 1. 듀이십진분류법(DDC)             | IV. 결론 및 요약       |
| 2. 일본십진분류법(NDC)             | 1. 시간(시대 및 연대) 구분 |
| 3. 한국십진분류법(KDC)             | 2. 공간(지리 또는 지역)구분 |
| III. 한국십진분류법 시·공간 분류체계 개선방안 |                   |

### 초 록

이 연구는, KDC 5판에서 발견된 여러 문제점들 가운데 시간(시대 및 연대 구분) 및 공간(지리 또는 지역구분)의 전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KDC 5판, DDC 22판 및 NDC 9판의 본표 및 보조표를 비롯한 분류표 전반에 걸쳐서 시간(시대 및 연대 구분) 및 공간(지리 또는 지역구분)의 전개체계를 분석·고찰한 다음, 시스템으로서의 문헌분류법의 요구에 부합되면서 국내실정에 가장 적합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안함으로써 KDC6판에 일조하고자 한 것이다.

키워드: 문헌분류법, 시간장치, 공간장치, 한국십진분류법, 듀이십진분류법, 일본십진분류법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ssibl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KDC 5th ed. as a system. After analyzing and evaluating time & space devices of KDC 5th ed.(including DDC 22th ed. and NDC 9th ed.), such as main schedules, common auxiliary tables, internal tables and notes,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were proposed. If above suggestions are adopted, effective literature classification scheme which is suited to domestic circumstances will be certainly prepared.

Keywords: Literature Classification, Time Device, Space Device, KDC, DDC, NDC

\* 이 연구는 2011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ahookim@gwangju.ac.kr)

• 접수일: 2011년 7월 21일 • 최초심사일: 2011년 8월 31일 • 최종심사일: 2011년 9월 23일

## I. 서론

한국십진분류법(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KDC라 칭함),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DDC로 칭함), NDC(Nippon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NDC라 칭함)의 시간(시대 및 연대 구분) 및 공간(지리 또는 지역 구분) 개념들의 전개 내역<sup>1)</sup>과 전체 분류법 내에서의 연관성 등을 분석·고찰한 다음 국내실정에 가장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안함으로써 KDC6판 개정 시에 일조하고자 한다.

그 동안 필자는 문헌분류법을 연구할 때 주제나 내용 전개의 논리성보다도 기호나 조합방식 등 시스템적인 측면에 더 관심을 가졌었는데, 주제나 내용 전개는 일차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 몫이기 때문이며, 문헌정보학 전문가는 문헌분류법의 체계, 즉 분류표 전체를 시스템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조직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문헌분류법은 용어와 주제, 또는 개념 간의 관계를 기호로 제시한 체계표이며, 일반적으로 문헌분류법을 세분·전개할 때 주제적인 세분수단이 없으면서 주제를 더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흔히들 준주제라고 간주되는 지역(지리 또는 공간), 시대(또는 연대)<sup>2)</sup> 또는 언어를 그 다음 세분수단으로 삼고 그 아래 세분수단으로는 단순한 형식(문헌의 물리적인 형태, 발행형식, 문헌의 체제 등) 요소들<sup>3)</sup>이 된다.

대부분의 문헌분류법에서 시간 또는 공간(지역 또는 지리)에 대한 전개체계는 본표 내에서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보조표의 형식으로 나타나고<sup>4)</sup> 그 보조표의 전개 내역을 토대로 하여 본표 내에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보조표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조표(일반 또는 공통보조표 전체)는 대체로 본표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필요 시 본표기호에 부가하여 조합함으로써 기호를 완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表(table)를 의미하며, DDC와 LCC에서는 Table, UDC에서는 Auxiliary Table, BC에서는 Systematic Auxiliary Schedule(체계범주표), 그리고 CC에서는 Isolate Idea(독립개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보조표는 열거지향적 분류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로서 '열거적 체계가 지식을 일일이 열거하기 때문에 분류체계가 방대해지고, 자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제를 기호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sup>5)</sup>

1) 보조표를 비롯하여 본표 내에서도 나타난다.

2) 예를 들어 문헌분류법에서 시대(연대) 순의 원칙은 주제의 출현 시대가 상이한 경우, 시대보다 더 중요한 사항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대(또는 연대) 순으로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형식구분'은 사실 동일한 분류기호를 가진 문헌들을 가급적 피하기 위한 수단, 즉 개별화수단으로서 도서관에서는 유용한 장치이지만 문헌을 찾는 이용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기호가 길어져서 혼란만 가중시킬 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대체로 이용자는 특정 주제의 문헌을 찾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료유형이나 출판형식을 조건으로 찾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4) 다만 연대구분(본표 모든 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계사적 관점의 고대, 중세, 근세 현대 등 기본적인 시대구분과 세기(世紀) 단위 또는 10년 단위의 연대구분을 갖춘 연대구분체계)을 제외한 시대구분체계는 본표 주제 내(특히 역사류)에서 해당 지역이나 주제의 사건 별로 전개되어 있다.

시·공간과 관련된 핵심적인 개념인 ‘시대, 연대’ 및 ‘지리, 지리현상, 지역’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시대: ‘특정 사건, 행동, 과정, 현재의 혹은 진행 중인 조건 등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혹은 측정된 시간<sup>6)</sup>을 의미하며, 또 다른 정의는 ‘특정 사건의 발생연대가 다르고 이들 사건 간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sup>7)</sup>
- 연대: ‘지나간 시간을 일정한 횟수로 나눈 것<sup>8)</sup>을 의미한다.
- 지리: ‘어떤 곳의 지형이나 길 따위의 형편’,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자연·인문적 현상<sup>9)</sup>을 가리킨다.
- 지리현상: 지형, 기후, 식생 등과 같은 자연지리와 행정, 경제, 언어, 교통 등과 같은 인문지리 모두를 포함한다.
- 지역: ‘동질적인 특징을 가진 지구<sup>10)</sup> 또는 지리현상 혹은 지리적 특성에 의해 구분되어진 지표면의 일부분을 가리킨다.<sup>11)</sup>

지리학에서의 지역구분 요소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오늘날의 대표적인 지역구분기준은 공식적인 정치적 관점에 의거한 국가 단위를 맨 먼저 떠올리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상하위개념들(행정구역들)로 구분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 저명한 지리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자연지리학(생태학적) 구분 요소인 기후(기온, 강수, 풍량 등),<sup>12)</sup> 지형, 토질(토양) 등과 인문지리학적 구분 요소인 사회학적 특성(사회적 행태, 역사 및 정치적 관심사항 등), 경제적인 관점(산업구조, 동질적인 소비행태, 유사한 노동구조, 교통 등), 문화적인 특성(언어, 종교) 등에 의해서도 지역구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대부분의 문헌분류표들은 정치적 관점에 입각한 국가단위를 기본적인 지역단위로 삼고 있는데, 그 외에도 위에 제시된 여러 다양한 지역적 요소들을 전개함으로써 보다 상세한 분류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5) Krishan Kumar,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rev. ed.(New Delhi : Vikas Publishing House), 1979.  
 6) Merriam-Webster Online Dictionary,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 [cited 2011. 6. 21].  
 7) 김태수, 분류의 이해(서울 : 문헌정보처리연구회, 2000), pp.103-134.  
 8) 네이버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search.nhn?dic\\_where=krdic&query=%EC%97%B0%EB%8C%80](http://krdic.naver.com/search.nhn?dic_where=krdic&query=%EC%97%B0%EB%8C%80)> [인용 2011. 6. 14].  
 9) 브리태니커온라인, <<http://premium.britannica.co.kr>> [인용 2011. 5. 25].  
 10) 브리태니커온라인, <<http://premium.britannica.co.kr>> [인용 2011. 6. 21].  
 부언하면 행정체계, 문화적 관점, 경제적 관점, 종교적 관점, 기후, 지형 등 여러 다양한 인문 및 자연 지리상에 근거한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다양한 지역들이 열거될 수 있다.  
 11) Oxford English Dictionary Online, <<http://dictionary.oed.com>> [cited 2011. 5. 25].  
 12) 쾨펜(W.P.Köppen)의 세계기후구분에 따라 전 세계를 11개의 기후지역으로 구분하였다.

## II. 시·공간 분류체계 분석

앞서 언급한 시간 및 공간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토대로 기존의 문헌분류표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분류표 별(DDC, NDC, KDC)로 특징, 장·단점 등을 분석·고찰하여 보다 개선된 방안, 특히 국내 실정에 가장 적합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도서관계에 제시함으로써 KDC개정에 일조하고자 한다.

### 1. 듀이십진분류법(DDC)<sup>13)</sup>

#### 가. 시대(연대)구분 전개 내용

##### (1) 표준세구분(T.1 Standard subdivision)<sup>14)</sup>

- 0901 고대(to 499 A.D.)
- 0902 중세(500-1499)
- 0903 현대(1500- )
- 0904 20세기<sup>15)</sup>
- 0905 21세기<sup>16)</sup>

##### (2) 본표

##### (가) 900(역사류)의 시대구분

- 909 세계사 ← T.1의 '-0901-0905' 즉 '역사적인 연대구분'과 완전한 조기성을 가진다.
- 910 지리 ← 시대구분과는 거의 무관한 항목
- 920 인물 ← 시대구분과는 거의 무관한 항목
- 930(고대사) ← 특이한 항목으로 단점으로 지적된다.
- 940 유럽사<sup>17)</sup>
- 중략
- 990 기타 지역 역사

13) 출처 →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2th ed.(Albany : Forest Press, 2003).

14) '-0901-0905'는 'historical period(역사적인 연대)'라고 표현하였는데, 고대, 중세, 현대는 표현상 시대구분이지만 어느 지역과 국가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대구분이며, 나머지 항목들은 단순히 100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 등 산술적인 연대로 구분되어 있어서 전체 전개내역의 성격에 따라 '역사적인 연대'라고 표현한 것 같다.

15) '09041-09049'에 10년 단위로 전개되어 있다.

16) 10년 단위로 세분되어 있다.

17) '940-990'에는 지역별, 사건별 시대구분이 아주 세밀하고 다양하게 전개되어 있다.

(나) 800(문학류)의 시대구분

각국 문학 아래 문학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전개되어 있으며, 900(역사류)에 전개되어 있는 각국의 시대구분과 대체로 조기성을 가진다.

나. 시대(연대)구분 전개 내용 분석 및 평가

공통(일반) 보조표(T.1) 내의 전개내역(-0901-0905)은 대체로 무난하지만 뒤에 언급된 KDC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연대구분표'라는 명칭으로 독립된 공통(일반)보조표를 유지하는 것도 실용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전개내역은 909(역사류 내의 세계사 항목)의 전개내역과 거의 동일한데 올바른 조치로 평가된다.<sup>18)</sup> 또한 특정 분류항목(대체로 주류, 강목 등 상위 항목) 내의 총괄 부분(예: 400(언어류)의 401~409 부분)은 대체로 'T.1 표준세구분(공통보조표)'과 조기성을 가지게 되므로 409 부분은 '언어사'가 되며, 필요 시 이 부분(특정 주제의 역사)은 대체로 T.1의 '-0901-0905'처럼 세분·전개된다.

기타 시대구분 전개내용을 보게 되면, 역사류(930-999)내에 각 지역별(대륙, 국가 및 지방)로 해당 지역의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무난하게 전개되어 있는데 넓은 지역에는 대체로 내부표<sup>19)</sup> 형식('01/09'의 기호형태)을 취한 다음 포함되는 세부지역의 역사를 분류하고자 할 때 내부표의 기호('01/09'의 기호형태)를 부가하는 방식을 주거나 매뉴얼에서 안내하고 있어서 이는 매우 유용한 장치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900(역사류)에서 고대사를 930(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및 팔레스타인, 고대그리스·로마시대 등)에 따로 모아 놓고 있어서 '940-990'은 중세 이후의 역사만을 분류할 수밖에 없으므로 혼란스러워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지역구분' 논할 때 자세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본표 가운데 900(역사류)을 제외한 시대구분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은 문학류로서 해당 지역의 역사류 내의 각 지역사와 대체로 조기성을 가진다.

다. 지역구분 전개 내용

(1) 지역, 역사적 연대, 인물구분표(T.2 Geographic areas, Historical periods, persons)<sup>20)</sup>

- 1 일반 지역(지형, 기후, 사회적) ← 높이 평가되는 대목이다.
- 2 인물 ← 단순한 지역구분과는 무관한 항목(900(역사류)과 조기성 때문에 존재함)
- 3 고대세계(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팔레스타인, 고대그리스, 로마)  
← 단점으로 지적된다. (900(역사류)과 조기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18) 세계사는 지역별 시대구분과는 무관하므로 고대, 중세, 현대, 그리고 가장 최근은 10년 단위로 세분한 것이 가장 올바른 전개방법이라 할 수 있다.

19) DDC에서는 부가표(add\_table)이라 칭한다.

20) 본표 900(역사류)과 대체로 조기성을 가지게 되어 순수 지역구분과 무관한 인물(-2)이 존재하고 또한 고대세계 지역(-3)까지도 나와 있다.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2권 제3호)

- 4 유럽
- 5 아시아
- 519 한반도(남한, 북한)<sup>21)</sup>
- 6 아프리카
- 7 북아메리카
- 8 남아메리카
- 9 기타지역(오세아니아, 양극지역)

(2) 본표

900(역사류)에 전개된 내역이, 극히 일부<sup>22)</sup>를 제외하면 'T.2 Geographic areas, Historical periods, persons'와 조기성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T.2와 이를 따른 900(역사류)은 DDC에서 대표적인 지역구분을 나타내고 있다.

(3) 표준구분표(T.1 Standard subdivision)

-091-099 ← T.2와 완전한 조기성을 가진다.

라. 지역구분(T.2 중심) 전개 내용 분석 및 평가

DDC에서 지역구분은 T.2(지역구분: 공통보조표), T.1(-09: 역사, 지리 및 인물 취급) 및 본표 900(역사류)에 대표적으로 전개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서 T.2의 전개내역을 먼저 확정한 다음 나머지는 T.2와 조기성을 갖게 전개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표 900(역사류)을 개괄적으로 전개해 놓고 구체적인 전개내역은 T.2(지역구분: 공통보조표)로 안내하고 있어서 둘 간의 조기성은 필수적이다.

DDC의 전개내역을 살펴보면, T.2(지역구분)는 보조표임에도 불구하고 본표 900(역사류)과 조기성을 유지시킨 나머지 -2(전기), -3(고대지역)을 앞세운 다음 -4(유럽) 이하 대륙구분을 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T.2는 순수한 지역구분으로만 전개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전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되어 있는데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고, 또한 앞서 역사류(900)의 시대구분에서 보았듯이 -3(고대지역)도 불합리하므로 삭제하게 된다면 -2에 '유럽지역'을 배정하고 이하 나머지 대륙들도 앞으로 기호를 이동시켜야 할 것이다. -1(지역일반) 항목에 아주 세밀하게 전개되어 있는 자연지리항목(일부 인문지리항목 포함)들은 아주 유용한 것들이라고 판단되며 기타 유럽을 비롯한 지역구분은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21) 국제사회에서는 북한도 주권국가로 인정하므로 남한과는 별도의 독립된 분류기호를 가진다.

22) 910(지리)과 T.2의 -1(일반 지역(지형, 기후, 사회적))은 아주 관이하다.

로 판단된다. 다만 -1(지역일반) 항목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고유명(대서양 등)들은 점유율이 높은 해당 지역(-4-9)으로 옮기고<sup>23)</sup> -1(지역일반)에는 자연지리학(생태학적) 구분 요소인 기후(기온, 강수, 풍량 등), 지형, 토질(토양) 등과 인문지리학적 구분 요소인 사회학적 특성(사회적 행태, 역사 및 정치적 관심사항 등), 경제적인 관점(산업구조, 동질적인 소비행태, 유사한 노동구조, 교통 등), 문화적인 특성(언어, 종교)에 의한 구분만 하는 곳으로 남기는 것이 좋겠다.

이상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T.2를 먼저 결정하였고 동시에 순수지역구분을 전제로 하였으며 900(역사류)의 경우 지역구분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T.2를 쫓아서 조기성을 유지시켰다. 마지막으로 T.1(-09: 역사, 지리 및 인물 취급)은 '역사'에 우선을 두어야 하므로 대체로 900(역사류)에 맞춰 전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표 1> 수정·보완된 DDC 지역구분 전개내역 비교표

T.2(순수 지역구분 지향)	900(역사류)	T.1(-09) <sup>24)</sup>
-01 (지역일반) <sup>25)</sup>	910 (지리) <sup>26)</sup>	-091 (지역일반 ← T.2의 -01과 조기성을 가짐)
-02 (유럽)	920 (유럽)	-092 (유럽)
-03 (아시아)	930 (아시아)	-093 (아시아)
-04 (아프리카)	940 (아프리카)	-094 (아프리카)
-05 (북아메리카)	950 (북아메리카)	-095 (북아메리카)
-06 (남아메리카)	960 (남아메리카)	-096 (남아메리카)
-07 (오세아니아)	970 (오세아니아)	-097 (오세아니아)
-08 (기타 지역: 양극지방 및 해양) <sup>27)</sup>	980 (기타 지역) <sup>28)</sup>	-098 (기타 지역 ← 980과 조기성을 가짐)
-09	990 (전기)	-099 (전기)

23) NDC나 KDC처럼 해양 항목(-8)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역사류(900)와 조기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즉 역사는 인간중심이므로 900(역사류) 전개를 먼저 결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타지역역사(990)에 섬들은 나타나지만 바다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역사류(900)와 조기성을 가진 지역구분표(T.2-보조표)를 그 후에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T.2는 900(역사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표 어떠한 주제에도 조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순수 '지역구분(공통보조표)'이므로 -16에 마련된 태평양, 카스피해 등 구체적인 고유지역명을 가진 해양 관련 항목들은 -8(기타)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24) T.1(-091-099)은 특정 지역의 역사(-09 전체는 특정 주체의 역사)이므로 098(기타 지역)은 인간의 역사와 무관한 해양은 제외하되 해양에 속하는 섬(유인도)만 남게 되므로 900(역사류)의 980과 조기성을 가진다. 그리고 특정 주체의 전기를 분류하기 위해서 -099(전기)를 배정하여 본표 990(전기)과 양자택일(DDC에서는 선택조항) 분류를 위해서 조기성을 갖게 한다. 사실 09는 주제별 역사에만 주로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지역별 역사의 경우 900(역사류)에서 분류하게 되기 때문이다.

25) 인류의 역사와는 무관한 항목으로 예를 들어 열대지역의 역사, 선진국의 역사 등인데 열대지방, 선진국 등은 본표 내에 해당 주제기호가 존재하므로 '열대지역의 본표기호+T.1(-09: 역사)'의 조합형식을 취하게 된다.

26) 910(지리)는 세부적으로 T.2(지역구분 지향)와 완전한 조기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911 또는 919 내에 지도 항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결책은 만족스럽다고는 볼 수 없다.

27) 기호 여분이 있으니 오세아니아와는 별도의 기호를 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28) 인류의 역사와 무관한 해양은 제외시킨다. ← 주(24) 참조.

## 2. 일본십진분류법(NDC)<sup>29)</sup>

### 가. 시대(연대)구분 분석 및 평가

NDC의 경우 KDC나 DDC와 달리 '1. 형식구분(공통세목 ← 일반보조표의 일종)<sup>30)</sup>의 '-02(역사적, 지리적 기술)' 아래에 기본적인 시대(연대)구분 항목이 전개되어 있지 않고 본표 내에 필요한 부분에 전개되어 있는데, 즉 KDC나 DDC의 보조표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성격의 세부항목<sup>31)</sup>은 본표 209(세계사, 문화사)<sup>32)</sup> 아래에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 있다.

#### 〈NDC 209(세계사, 문화사) 전개 내용〉

- 209.2 선사시대: 석기시대, 금속기시대
- 209.3 고대
  - 209.32 전설·신화시대
  - 209.33 고대오리엔트
  - 209.36 에게문명
- 209.4 중세 476-1453
- 209.5 근대 1453-
- 209.6 19세기
- 209.7 20세기
  - 209.71 제1차 세계대전
  - 209.74 제2차 세계대전
  - 209.75 1945-

먼저 전개 내용 가운데 209.3(고대)을 보면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만 분류하고 각 지역, 예를 들면 이집트고대사는 이집트역사(242) 쪽에서 분류하고 있어서 DDC보다 더 합리적이다.<sup>33)</sup> 다만 209.36

29) 출처 → 日本圖書館協會, 日本十進分類法, 新訂9版(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95).

30) DDC나 KDC는 과거에 '형식구분'이라 칭하였으나 오늘날은 '표준구분(표)'라 칭한다.

31) DDC나 KDC의 경우 대표로 간주되는 연대(시대)구분이 1.표준구분(표) -09 하의 -0901-0906(DDC는 -0901-0905)에 나와 있다.

32) NDC는 역사류를 200에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 및 시대(연대) 관련 모든 기본기호는 2가 된다. 그렇다면 209보다는 202가 더 적절한 기호라고 본다. 이와는 달리 KDC나 DDC는 역사류를 900에 전개하고 있어서 역사 및 시대(연대) 관련 모든 기본기호는 9가 된다.

33)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DDC에서는 900(역사류)에서 고대사를 930(세계 4대문명의 발상지 및 팔레스타인, 그리스·로마시대 등)에 따로 모아 놓고 있으며, T.2에서도 조기성을 고려해서 -3에 무리하게 나와 있다. 930에 고대사를 모아 놓은 것도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고, T.2(지역구분보조표)에 고대지역을 따로 모아 놓은 것은 더욱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에게문명)의 경우 각 지역별 고대사는 210/279에서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고대그리스 문명에 속하는 에게문명만 여기(세계사)서 분류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전반적으로 무난하지만 DDC 수준으로 세분해서 특히 1300년대 이후로는 세기단위로 전개해 놓는 것도 필요하고 나아가 20 세기는 10년 단위로 세분하는 것이 실용적일 것이며 21세기도 10년 단위로 세분해서 전개할 것을 추천하고자 한다.

209(세계사)의 세부적인 전개내용은 비단 독립된 공통(일반)보조표는 아닐지라도 KDC나 DCC 처럼 특정 공통보조표(표준구분표 ← NDC는 형식구분[공통세목]이라고 함) 내에 우선적으로 존재하게 해서 본표 내의 어떠한 분류기호에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형식구분(공통세목) 내에서는 '-02'에 세부적인 전개 내용 없이 단지 '역사적·지리적 기술'이라고만 나와 있고 그 아래에 '지리구분' 지시주가 나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본표 내의 특정 분류항목(대체로 주류, 강목 등 상위 항목) 내의 총괄부분(예: 400의 401~409 부분)들도 형식구분(공통세목)과 대체로 조기성을 가지게 되므로 예를 들어 402 부분은 과학사가 된다. 그러하다면 200(역사류) 하의 세계사(209) 부분도 조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02에 옮기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며 동시에 역사보조학(202)은 209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되면 NDC에서의 모든 분류기호에서 시대(연대)개념은 어디에서나 기본적으로 '2'가 된다.<sup>34)</sup> 유용한 문헌분류법이 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가능한 동일개념이라면 보조표 또는 본표 어디에서나 동일기호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NDC 시대(연대)구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NDC 시대(연대)구분 개선방안><sup>35)</sup>

- 02.02 선사시대: 석기시대, 금속기시대
- 02.03 고대
- 02.032 전설·신화시대
- 02.033 고대오리엔트
- 02.04 중세 476-1453
- 02.05 근대 1453- ← 이 항목 이하는 세기단위 등으로 더욱 세분할 필요가 있다.
- 02.06 19세기
- 02.07 20세기 ← 10년 단위로 세분 필요
- 02.071 제1차 세계대전

34) DDC, KDC 등 다른 대부분의 문헌분류법들은 '9'가 시대(연대) 개념이다.

35) 1. 형식구분[공통세목] -02(역사적·지리적 기술) 하에 전개한다. 이 항목이 KDC나 DDC의 표준구분표 -09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아래 전개내용에서 -02 다음에 '0'을 앞세운 것에 주목하길 바란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에게 문명 항목은 삭제하였다.

- 02.074 제2차 세계대전
- 02.075 1945-
- 020.8 21세기 ← 10년 단위로 세분 필요

209(세계사)를 제외한 본표 내의 시대(연대)구분 전개내역을 살펴보면 대체로 역사류(200) 내에 각 지역별(대륙 및 국가)로 해당 지역의 역사적인 사건중심으로 잘 전개되어 있는데 DDC처럼 내부표<sup>36)</sup>를 취한 다음 조합 방식을 주거나 매뉴얼에서 안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00(역사류) 외에서 시대구분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은 900(문학류)으로서 대체로 무난하게 전개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 나. 지리구분(지리세목) 전개내용 분석 및 평가

NDC는 지리구분(지리세목 ← 일반보조표)에서 자국(일본)을 맨 앞 주류기호(1)에 배정하고 아시아(2), 유럽(3) 식으로 대륙구분으로 대별하고 있는데 자국문헌이 많기 때문에 자국의 분류기호가 짧아지는 장점도 있지만 개념의 계층적 전개에 있어서는 불합리하므로 일장·일단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역사'도 지리구분과 조기성을 가져서 210이 된다. 한편 NDC는 단순히 행정구역만 전개하고 있는데 그것에 더하여 고유명을 가진 구체적인 강, 산, 산맥 등이 추가되어 점유율이 높은 지역(행정구역)에 배치해야 하겠으며, 더불어 DDC T.2의 -1(지역일반, 즉 다양한 자연 및 인문지리 항목이 세분·전개되어 있음, 'KDC개선방안' 본논문 p.15 참조) 내용을 포함시켜 -1에 위치시키고 일본 이하를 '2~9'로 한자리씩 이동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NDC는 일본이 섬나라라서 그러한지 몰라도 해양구분(일반보조표 3)을 별도로 세분해서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3. 한국십진분류법(KDC)<sup>37)</sup>

#### 가. 시대(연대)구분 내용 분석

##### (1) 표준구분표(조기표)<sup>38)</sup>

- 0901 원시시대
- 0902 고대

36) NDC에서는 '고유보조표'라 칭한다. 형식(예 : 일본역사의 경우 210(일본역사) 하에 <2/.7>으로 나와 있는 시대사를 <211/219 일본 각 지역>에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02/07>의 기호형태를 취한다.

37)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편저,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9).

38) 표준구분표, 한국시대구분표, 지역구분표, 등 KDC에서는 '일반(공통)보조표'를 '조기표'라고 칭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기표'란 표기를 생략하기로 한다.

- 0903 중세
- 0904 근세
- 0905 20세기
- 0906 21세기

위 전개는 '공통표조표(조기표)'이므로 KDC 내의 모든 시대(연대)구분 전개의 근간(표준)이 되어야 한다.

(2) 본표

(가) 909(세계사)의 시대구분(909.1~909.6) 및 기타 주제의 역사(... + 09)

909(세계사)는 표준구분표 '-0901-0906'을 따라 조기성을 가지게 되므로 동일하게 전개되어 있다. 900(역사류)뿐만 아니라 본표 내의 어떠한 상위주제(주류, 강목 등)도 역사부분(예: 800(문학)의 총괄부분(801-809) 중에서 역사부분(809)), 예를 들어 809(세계문학사)의 시대(연대)구분은 표준구분표 '-09901-0906'의 전개내역과 대체로 조기성을 가지게 되어 거의 동일하게 세분·전개된다.

(나) 909(세계사)를 제외한 900(역사류) 내의 시대구분

909(세계사)의 시대구분(909.1~909.6)을 제외한 각 지역별 시대구분(970-979)은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역사적인 사건의 진화 순에 따라 세분·전개된다.

(다) 800(문학류) 및 기타 주제의 시대구분

예 : 810.9 한국문학사

.903 삼국시대 .904 고려시대 .905 조선시대 .906 20세기 .906 21세기

문학 개념이 존재하기 시작한 이 후의 해당 국가의 시대구분<sup>39)</sup>과 대체로 동일하게 전개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주제의 특성에 따라 전개되어 있다.

(3) 한국시대구분표

본표 911.01-.082와 같이 구분한다.

- 01 원시시대
- 02 고대(상)

39) 본표 역사류(910-979) 내에 각 지역 별로 시대구분된 것.

- 03 삼국시대(고대 하)
- 04 고려시대(중세)
- 05 조선시대(근세)
- 06 항일시대(최근세)
- 07 대한민국시대 1945-
- 08 21세기

사실 위 전개는 오동근이 유추한 것을 제시한 것으로,<sup>40)</sup> 이와 같은 기호체계는 사실 필자도 공감하는 바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지역구분 전개내용 분석

(1) 지역구분표<sup>41)</sup>

<표 2> KDC 2.지역구분표 전개 내용 ← 중요 항목만 전개함

분류기호	표목	분류기호	표목	분류기호	표목
-1	아시아	-2	유럽	-3	아프리카
-11	한국	-21	고대그리스 <sup>42)</sup>	-4	북아메리카
-12	중국	-22	고대로마	-41	캐나다
-13	일본	-23	스칸디나비아	-42	미국
-14	동남아시아	-24	영국	-43	멕시코
-15	인디아	-25	독일	-5	남아메리카
-16	중앙아시아	-26	프랑스	-6	오세아니아
-17	시베리아	-27	스페인	-7	양극지방
-18	서남아시아	-28	이탈리아	-8	해양 <sup>43)</sup>
-19	아라비아반도	-29	러시아		

KDC4판까지는 ‘지역구분표’가 국가단위 정도로 간략하게 전개되어 있고 본표 900(역사류) 내에 세분·전개되어 있었으나 5판에서는 다른 문헌분류법들<sup>44)</sup>과 마찬가지로 ‘지역구분표’가 아주

40) 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KDC5의 이해(대구 : 태일사, 2009), p.94.

41)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지만 문헌분류(법) 전체에서 지역구분의 기반이 되는 것은 지역구분표(보조표)이므로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결정된 다음 나머지 부분의 지역 관련 구분이 전개되어야 한다.

42) 고대그리스, 고대로마 항목이 나와 있는 것은 아마 DDC를 쫓은 흔적 같은데 무턱대고 추종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이 한국 실정에 맞는다고 본다.

43) KDC4판에서는 해양(-8), 항목이 빠졌다가 KDC5판에 포함되었는데 개선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NDC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NDC에는 해양구분표를 지역구분표와는 별도의 독립된 보조표로 마련되어 있다.

상세해져서 고무적이다. 다만 기호체계의 경우 50, 60, 70, 80은 5, 6, 7, 8로 수정되어야 한다.

(2) 본표

900(역사류)은 시간(시대)개념이 먼저 떠오르지만 세계사(909)를 제외한다면 지역을 먼저 정하고 해당 지역의 사건별로 시대전개를 하게 되므로 900(역사류)도 표면적으로는 지역구분과 대체로 조기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900(역사류)의 '910-970'는 지역구분표 '-1-7'을 좇아 완전한 조기성을 가지게 되므로 '910-970'에는 세밀한 지역구분은 하지 않고 지역구분표 '-1-7'로 안내만 하게 된다. 지역구분표 -01(지역일반)과 -08(해양)은 역사(인류 중심 기술)와 무관하여 900(역사류)에는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조기성을 가지지 않아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3) 표준구분표 내에서의 지역구분 내역

-091 -097 특수대륙, 국가, 지방구분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098 일반지대, 지방, 해양구분(한대, 온대, 열대, 산악 및 사막지방)

-099 전기

'표준구분표' 내에서의 '-091-097'은 사실상 역사 개념이어서 본표 900(역사류)의 '910-979'와 완전한 조기성을 가지게 되므로 KDC4판에서의 '본표 910-979와 같이 지역구분 한다.'라는 주기의 경우 엄격하게 보면 가장 올바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KDC5판에서는 세부적인 지역구분의 경우 지역구분표가 유일하므로 편의상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라는 지시주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명목적으로는 '지역구분표'와 '표준구분표' -09가 조기성을 가져야 하므로 KDC5판의 '표준구분표', '-0981(한대지방)-0985(사막)'는 '지역구분표' -09(해양)와 조기성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된 '지역구분표'의 -091(지역일반)<sup>45)</sup>에 포함될 개념들이다.

(4) 한국지역구분표

'지역구분표 111-1199와 같이 세분한다.'

KDC 5판에서의 '한국지역구분표'는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서 이것은 분명한 오류라고 볼 수 있

44) 본표 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보조표의 경우 본표 내의 어느 곳보다도 보조표 자체에 가장 세밀하게 전개하고서 본표에는 '보조표를 사용하라'는 안내만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다.

45) 지역구분표에서 행정구역 이 외의 지역구분(자연지리 및 경제적 구분 등)을 마련하게 되면 그 안에 포함될 개념들이다. 다만 여기는 산이면 산, 강이면 강 전체를 다룬 문헌을 분류하기 위한 항목이므로 특정 지역에 속하는 고유지명들(예 : 고비사막, 나일강, 룩키산맥 등)은 그것들이 포함되는 행정구역 쪽(-092-098)에 위치하게 된다.

다. 사실 4판에서도 한국지역구분표는 존재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데, 굳이 4판에서 한국지방들을 세부적으로 공통보조표(조기표)에 나타내려고 하였다면 '지역구분표'의 한국(-11)에 본표 「한국 각 지방(911.1~.9)」의 전개 내용과 동일하게 전개해 놓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sup>46)</sup> 특히 5판의 경우 이미 '지역구분표' 내에 '한국지역구분표'에서 지시<sup>47)</sup>하는 동일한 기호가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지역구분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한국 각 지역을 지리구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Ⅲ. 한국십진분류법 시·공간 분류체계 개선방안

#### 1. 시대(연대)구분 개선방안

##### 가. 연대(시대)구분

CC, BC, UDC<sup>48)</sup> 등 상당 수 문헌분류법들은 독립된 연대(시대)구분표(보조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KDC, DDC 및 NDC<sup>49)</sup>는 일반 또는 공통보조표인 표준구분표(NDC는 '형식구분'이라 칭함)의 -09 하에 전개되어 있어서 독립된 보조표(일반 또는 공통보조표)에 비해 분류기호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독립된 보조표(조기표)로 전환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기존의 표준구분표 내에 그대로 존치시킨다면, 연대(시대)구분의 전개 내역은 대체로 특별히 기존과 다르게 제시할 만한 것은 없으므로 기존의 것 가운데 무난하게 전개된 DDC의 것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되면 '-0901-0906'이 아니라 '-0901-0905'가 된다. 즉 KDC에 존재하는 원시시대(-0901)는 삭제하고 세계사적인 공통시대구분인 [고대(-0901), 중세(-0902), 근세(-0903), 20세기(-0904), 21세기(-0905)]에서 근세(1300-) 이하는 100년(세기)단위로 세분하고<sup>50)</sup> 20세기 및 21세기는 10년 단위로 세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DDC(역사적인 연대구분) 및 KDC(역사구분) 전개내용은 대체로 산술적인 연도단위 구분이 지배적이므로 '연대구분'이라는 표현이 더 합당하다고 본다.

46) 예를 들어 함경도(지역구분기호) 경우 본표 함경도역사(911.1)에서 9를 제외한 111이 된다.

47) 사실 하나의 표(table)라고 하면 그 자체에 세부내용을 보여 주어야 옳은 것이지만 다른 곳을 보도록 안내하는 것은 분류 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은 자명하며, '한국지역구분표' 경우도 같은 맥락이다.

48) UDC는 공통보조표(Table 1g → 다른 분류법들은 '그레고리력' 만을 기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반해, 그레고리력이 외의 연대구분, 문화적인 기준, 생물학적인 기준 등 아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어서 유용하다.) 외에도 연대를 본표 다음에 조합할 수 있도록 조합기호(숫자기호 중심)를 제시하고 있어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UDC Master Reference File 2009 기준, <<http://www.udcc.org>> [cited 2011. 6. 21].

4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NDC는 형식구분[공통세목]에 전개되지 않았으므로 본표 200(역사류) 내에 209(세계사) 부분에 전개된 것이 분류표 전체에서 가장 근간이 된다.

50) KDC4판에서는 세기단위였는데 KDC5판에서는 오히려 역행한 느낌이다.

#### 나. 본표 내의 시대구분

먼저 표준구분표 내의 시대(연대)구분 전개내용(-0901-0905)<sup>51)</sup>이 역사(900) 내의 909(세계사 : 909.1~909.5)에 동일하게 전개되어 져야 한다. 그 아래 각 지역(국가 이하) 별로는 역사적인 사건 중심으로 제각기 다르게 전개되어 있어서 각 국가별, 지역별 시대구분을 전부 모아서 공통보조표(조기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해당 국가의 시대구분을 각 지방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 국가별 시대구분은 DDC에서는 내부보조표(부가표(add table) 형식을 취하게 되며 기호조합 결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01-09의 기호형태를 갖는데 DDC에서는 이러한 용도의 0을 패싯기호라고 한다. KDC도 '내부보조표' 형식을 취하는 것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함경도 조선시대사'의 경우 '함경도(911.1 ← 본표기호)+조선시대(05 ← 내부보조표 기호)'의 조합형식을 취하게 된다.

#### 다. 한국시대구분표

본표 '911.01-.082'에 전개된 내역에 의거한다면 대체로 무난하게 전개되어 있다고 본다. 다만 -07(대한민국시대)과 -08(21세기)의 관계가 비논리적이긴 하지만 별다른 묘안이 없어 보인다. 광철완은 한국시대구분의 경우 제2공화국, 문민정부 등의 구분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sup>52)</sup> 시대구분을 산술적으로 세분, 즉 연대구분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데, 시대구분은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10년 또는 100년 단위로 단순하게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대구분은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주제나 특정 지역과는 무관한 세계사에만 적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시대구분표' 만을 일반(공통)보조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 구체적인 표도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법(기호조합방식 등)을 명시하지 않아서 지적사항이 되고 있다. 오동근은 '본표기호+지역구분기호(본표 내에 지역구분지시 있는 경우)+시대구분(01~09)' 및 '본표기호+09(표준구분표 기호 ← 본표 내에 지역구분지시 없는 경우)+지역구분기호+시대구분(01~09)' 조합형식을 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sup>53)</sup>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저작물에 불과하므로 KDC5판 해설(매뉴얼)을 마련하여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져야 공신력을 가지게 된다. 이왕이면 몇몇 중요한 다른 국가(예: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나온 시대구분(-01-09)도 '한국시대구분표'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끔 조치한다면 KDC의 활용범위가 확장되므로 보다 실용적인 분류법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51) 앞서 DDC를 좇아서 기호체계를 바꾸고자 한 것이다.

52) 광철완, "한국십진분류법 역사(900) 분야 개정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0권, 제3호(2009. 9), p.159. [필자 주 : 한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자신의 집권 기간을 그 전에 비해 혁명적으로 개혁하였다고 자평하는데서 유래된 명칭들이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53) 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전계서, p.95.

## 2. 지역구분 개선방안

기본적으로 '지역구분표'의 전개내역을 먼저 확정된 다음 이를 반영하여 900(역사류), '표준구분표' -09 항목을 결정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보조표(조기표)를 비롯한 본표 내에 전개된 지역구분은 대체로 국가 단위를 기준으로 상 하위 개념들(행정구역들)로 구분되어 있다. 그것에 다양한 자연지리 및 인문지리 항목들<sup>54)</sup>을 세부적으로 추가하여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KDC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이 내용들을 더욱 상세하게 전개해서 '지역구분표' 맨 앞에 '1.지역일반'이라는 항목을 신설하고자 한다. DDC 지역구분표(T.2) '1.지역일반'의 세부전개항목을 일부 수정해서 소개하면 아래와 같으며 이를 KDC 지역구분표 '1.지역일반'에 전개하고, 표준구분표 '0981~0983'에 전개되어 있는 기후관련 항목(예: 한대지방, 온대지방, 열대지방 등)을 삭제한다.<sup>55)</sup>

〈DDC 지역구분표(T.2)의 지역일반(-1)의 전개 내용(일부 수정)<sup>56)</sup>〉

- 11 빙하지역(남극, 북극, 툰드라(동토) 지역을 포함한다)
- 12 기온 또는 기후 관련 지역
  - 121 한대지역(아한대지역을 포함한다)
  - 122 온대지역
  - 123 열대지역(아열대지역을 포함한다)
- 13 지형 분류
  - 131 대륙, 섬
  - 132 산, 산맥, 고원, 캐년, 언덕, 경사, 계곡, 동굴, 평원, 평야

54) 자연지리학(생태학적) 구분 요소인 기후(기온, 강수, 풍량 등), 지형, 토질(토양) 등과 인문지리학적 구분 요소인 사회학적 특성(사회적 행태, 역사 및 정치적 관심사항 등), 경제적인 관점(산업구조, 동질적인 소비행태, 유사한 노동구조, 교통 등), 문화적인 특성(언어, 종교) 등.

55) 표준구분표 -09는 주로 특정 주제의 역사(예 : 종교음악사 ← 672+09)를 분류하기 위한 항목으로 특정 지역의 역사를 분류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091-098'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091-098'은 '-09' 하에 '지역구분표'를 확장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본표 특정 주제를 지역구분할 필요가 있으면서 주기에 '지역구분표에 따라 지역구분한다.'라는 지시가 없을 때 '본표주제기호+09(표준구분표 -09 삽입)+지역구분기호'의 조합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출처 : 오동근, KDC5판의 이해], 이때 2.지역구분표에 나오지 않은 지역이 1.표준구분표의 -09에 나와 있는 지역(-0981-0983)은 무의미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1.표준구분표의 '-0981-0983' 전개내역은 2.지역구분표의 적절한 위치로 이동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2.지역구분표가 먼저 유용하게 확정된 다음 1.표준구분표에는 단지 2.지역구분표의 세부항목으로 안내하는 주기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볼 때 표준구분표 -09는 '연대구분(-0901-0906)' 및 -099(전기) 항목만 유의미하며 다른 용도(역사 혹은 지역)로는 단순히 -09 항목만 존재하면 되는 것이다.

56) 여기는 산이면 산, 강이면 강 전체를 다룬 문헌을 분류하기 위한 항목이므로 특정 지역에 속하는 고유지명들(예 : 5대양 명칭 등)은 포함되는 행정구역 쪽(-092-098)으로 이동시켰다.

- 133 산림, 팜파스, 사바나, 우림지역, 건조지역(사막을 포함한다)
- 134 해변, 해안, 델타, 근해, 원양, 만, 해협, 심해, 해구
- 14 반구 구분(남반구, 서반구, 북반구, 동반구를 포함한다)
- 15 사회·경제적 지역구분
- 151 정치, 경제적인 연합 또는 연맹
- 152 선진국, 신흥국, 개발도상국, 중진국, 후진국
- 153 도시, 시골
- 154 종교적인 지역구분

KDC 4판 해설에는 구체적인 고유명을 가진 자연지리의 경우 점유율이 높은 행정구역에 분류하도록 조치하였지만,<sup>57)</sup> 사실 애매한 경우가 허다해서 KDC5판 지역구분표의 ‘행정구역’ 전개를 살펴보면 포함되어야 하는 지역명, 즉 도시명을 비롯하여 강, 산, 고원, 산맥, 국립공원 등 일반지도에 표기될만한 고유지역명들이 누락되거나 잘못 위치한 것들이 눈에 띄는데 강 외에 산맥, 고원, 호수 등은 거의 표기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자연지리에 해당되는 지역(강 외에 산맥, 고원, 호수 등)과 기후구분 등은 분류표 본표 내에서 어느 특정 주제(예를 들면 자연과학 가운데 지구과학 쪽에서 대부분 필요한 항목들임) 내에 전개해도 별 문제는 없겠지만 분류표는 상세할수록 우수한 분류표로 평가되기 때문이다.<sup>58)</sup> 지역구분은 대체로 행정구역 단위로 전개되기 때문에 특정 산맥, 고원, 호수 등의 위치가 모호해서 위치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간과해 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장 적절한 행정구역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KDC5판에는 강, 산맥, 고원, 호수 등 행정구역 내의 적절한 위치에 포함시키기 난해한 자연지리명의 경우 대부분(강만 일부 표기됨)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누락된 부분을 필자 나름대로 추가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 <표 3>이다.

57) ‘산, 산맥, 사막, 고원, 강,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등 자연지리의 경우 그것이 속한 주된 지역(행정구역)에 분류한다.’ 예 : 낙동강 → 911.8(경상도),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十進分類法解說編纂委員會, 韓國十進分類法解說, 改正 第4版(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97), p.280].

58) 미시시피 강에 관한 지구과학 외적인 주제의 문헌을 분류하려면 미시시피강이 어느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 이용자가 알아서 판단하기 전에 분류표 내에 이미 나와 있게 되면 여러 면에서 사용하는데 편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 3〉 KDC 2.지역구분표의 누락 내용 리스트<sup>59)</sup>

분류기호	기준표목	누락 내용	분류기호	기준표목	누락 내용
111	관북지방	백두산을 포함한다.	311	이집트	나일강을 포함한다.
1136	황해남도	청천강을 포함한다.	184	이란	고대 페르시아는 여기서 분류한다.
114	강원도	설악산, 오대산을 포함한다.	317	서부 사하라	사하라사막을 포함한다.
119	전라도	지리산, 덕유산을 포함한다.	42	미국	록키산맥을 포함한다.
1195	전라남도	섬진강을 포함한다.	421	미국북부 대서양 연안	오대호지방을 포함한다.
1199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을 포함한다.	4254	미시시피	미시시피강을 포함한다.
1136	평안남도	청천강을 포함한다.	4291	워싱턴	컬럼비아국립공원을 포함한다.
128	티베트 자치구	티베트고원을 포함한다.	43	멕시코	마야, 아즈텍 문명을 포함한다.
2457	런던	템즈강을 포함한다.	53	브라질	아마존강을 포함한다.
25	독일	라인강을 포함한다.	55	페루	잉카문명을 포함한다.
2523	헤센	프랑크푸르트를 포함한다.	59	칠레	안데스산맥을 포함한다.
257	체코	다뉴브강을 포함한다.	2998	터키(유럽)	이스탄불을 포함한다.
259	스위스	알프스산맥을 포함한다.			

KDC5판 ‘분류위원회보고’에 의하면 ‘중국·일본의 인명·지명 등 고유명사는 원음대로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전판 대비 개선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한다.

- 1544 봄베이(Bombay) → 뭄바이(Mumbai)<sup>60)</sup>
- 127 천산산맥(天山山脈) → 텐산산맥(天山山脈)
- 162 천산산맥(天山山脈) → 텐산산맥(天山山脈)

한편 우리나라 중심으로 전개해서 [1 아시아 11 한국]으로 전개<sup>61)</sup>한 다음 한반도 전역을 세

59) 184, 43, 45 항목은 여기에 포함될 항목이 아니지만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생성하였다.

60) 1995년 봄베이(Bombay)를 뭄바이로 개칭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7396>>].

61) NDC는 자국(일본)을 맨 앞 주류기호(1)를 배정하고 아시아(2), 유럽(3) 식으로 대륙구분으로 대별하고 있는데 자국의 분류기호(자국문헌이 많기 때문에)가 짧아지는 장점도 있지만 개념의 계층적 전개에 있어서는 불합리하

분·전개함으로써 한반도 전역을 한국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DDC처럼 한반도 내에 한국, 북한을 구분하고서 해당 세부 지역을 전개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역구분은 각국의 수도를 먼저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을 권장한다든가, 한국지역구분표가 너무 세분되어 분류기호가 길어진다는 하는 의견들이 있지만 필자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KDC 지역 관련 구분들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정·보완된 지역구분표〉

-1 지역 일반(역사와 무관) -2 아시아 -3 유럽 -4 아프리카 -5 북아메리카  
-6 남아메리카 -7오세아니아 -8 양극지방 -9 해양(역사와 무관)<sup>62)</sup>

〈수정·보완된 역사류(900)〉<sup>63)</sup>

910 지리 920 아시아 ... 980 양극지방 990 전기

〈수정·보완된 지리(910)〉<sup>64)</sup>

911 지역일반(역사와는 무관)<sup>65)</sup> 912 아시아 913 유럽 914 아프리카 915 북아메리카  
916 남아메리카 917 오세아니아 918 양극지방 919 해양(역사와는 무관)

이와 같이 지역구분표가 상세하게 마련된다면 앞서 언급된 바 있지만 먼저 본표 『920~989』<sup>66)</sup>는 지역구분표 '-2-8'과 조기성을 유지하게 되며 필요 시 주기로 사용안내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로 사용될 일은 없겠지만 표준구분표 '-091-098'에 주기(지역구분표 '-1-8'과 같이 지역구분 한다.)로 전개지시 해야 하고 본표 여러 부분(예: 통계 312~319)에 '지역구분표'와 조기성을 유지하면서 주기로 전개지시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 한국지역구분표'는 앞서 자세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삭제되어야 한다.

므로 일장·일단이 있다고 판단된다.

62) 5대양(양극지방 제외 : -8\_별도항목)을 비롯한 지구촌 해양에 존재하는 유인도(인간이 존재하므로 역사가 발생 할 수 있음)들은 해양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들 섬(유인도)들은 대체로 6대주 또는 국가 단위의 행정구역에 명확하게 속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된다.

63) 지역구분(T.2의 '-2-8'은 본표 900(역사류)의 관련 항목(920-980)과 완전한 조기성을 가지게 된다.

64) 지도 항목을 제외하면 '지역구분표'와 완전한 조기성을 가지게 된다.

65) 그렇게 되면 911 또는 919 내에 지도 항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결책은 만족스럽다고는 볼 수 없다.

66) 역사와 무관한 지역인 -1(지역일반)과 -9(해양)의 경우 역사류(900)에서는 안내할 필요가 없다.

## IV. 결론 및 요약

KDC5판의 시간(시대 및 연대구분) 및 공간(지리 또는 지역구분) 개념들의 전개 내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DDC, NDC 및 KDC를 대상으로 보조표를 비롯하여 본표에 나타나는 전개 내역을 분석·고찰한 다음, 한국 실정에 가장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써 KDC 6판에 대비하고자 하였는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67)</sup>

### 1. 시간(시대 및 연대) 구분

- ① 연대구분(표준구분 및 900(역사류)의 909(세계사)): DDC의 것을 일부 수정해서 채용하기로 하였고 명칭을 '연대구분'으로 통일하기로 하였으며, CC, BC, UDC처럼 독립된 보조표(조기표)로 전환하는 것도 제안하였다.
- ② 시대구분(본표): DDC처럼 내부보조표(부가표(add table)) 형식을 취하게 하여 조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4.한국시대구분표'는 구체적인 표 제시와 사용법(해설)을 제안하였다.

### 2. 공간(지리 또는 지역)구분

- ① '지역구분표'를 먼저 확정된 다음, 900(역사류) 및 '표준구분표' -09를 '지역구분표'에 맞추었다(조기성을 유지하였다).
- ② 행정구역 외적인 요소(자연 및 인문지리 요소들)를 추가하기 위한 방편으로 DDC T.2의 1(지역 일반)의 전개내역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KDC '2.지역구분표'의 1항목에 배치하였고 그로 인해 KDC 지역구분표의 '-2-8'은 한 자리씩 밀려나게 되었다.
- ③ 나일강, 한라산, 알프스산맥 등 구체적인 고유 명칭을 가진 자연지리항목들 가운데 누락된 것들이 있어서 각각 제 위치에 추가(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역구분표의 표기오류부분을 일부 수정하였다.
- ④ '3.한국지역구분표'는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67) KDC 개선방안을 보다 세심하게 제시하려고 시도한 결과, DDC, NDC에 대한 것도 보다 상세하게 진단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책까지도 제시하게 되었는데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KDC 개선방안임을 제차 주지하는 바이다.